

구례군 지리산정원, 전라남도 '지방정원' 지정

**'숲 정원' 중 전남서 유일 선정
하늘·별빛숲정원 등 5개 주제
안내소·유리온실 등 편의시설
"체류형 힐링관광지 조성 노력"**

전남도 최대의 산림 복합 휴양공간인 구례 지리산정원이 지난 10일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다. 숲 정원 으로서는 전남에서 유일하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이고, 정원관리 전담 부서 설치,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지리산정원은 구례군 광의면 일대 193ha 규모로 야생화테마랜드, 지리산 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숲속수목가옥 등 정원시설을 포함한 공간이다. 군은 이중 10.8ha를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5개의 주제정원을 조성했다.

주제정원 5곳은 구례의 하늘을 품은 하늘정원, 밤하늘 별빛을 수놓은 별빛숲정원, 군민 화합을 상징하는 어울림정원, 숲속 체험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와일드정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라이빗정원이다.

하늘정원은 기존 경사 지형 및 시설물을 활용해 하늘을 향해 열린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야생화터워 및 하늘브릿지, 캐스캐이드, 암석원 등이 설치돼 웅장한 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지리산에서 바라본 밤하늘 별빛을 모티브로 구성된 별빛숲정원에서는 숲속 테라스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밤에는 다채로운 조명으로 연출되는 낭만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어울림정원에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식물을 가꾸고, 담소를 나눌 수 있으며,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구현된 와일드정원에서는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숲속수목가옥 여유 부지를 활용한 프라이빗정원에서는 더욱 편안하고 아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리산정원 주변에는 탐방안내소, 유리온실,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시설, 음수대, 야외카페 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세심하게 준비돼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원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전남도 최대의 산림 복합 휴양공간인 구례 지리산정원이 지난 10일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구현된 와일드 정원.

구례군 제공

리온실,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시설, 음수대, 야외카페 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세심하게 준비돼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원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선진국형 산업"이라며 "지리산정원과 구례수목원, 산수유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공연장

고흥군은 오는 19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야외 공연장에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은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인기 가수 민성아를 비롯해 여섯 팀의 가수들이 가요, 트로트,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약 40~50년 된 편백나무와 전국 최대 규모인 417헥타르(ha)의 편백나무 숲을 보유한 전남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이다.

치유의 숲에는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복유림식 걷기(노르딕 워킹) 코스와 8.4킬로미터(km)의 숲길이 있으며, 치유(테라피)센터의 수치유실에서는 고흡만의 특징인 3색 탕(유자·편백·석류탕)이 운영되고 있어,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군 관계자는 "황화 코스모스와 편백의 상록이 어우러진 고흡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심신을 재충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에 성인용 기저귀 기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지난 11일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이사장 홍현승)가 장흥군에 1000만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기부했다.

이번 성인용 기저귀 지원은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2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8년째 이어 오고 있다.

장흥군과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2014년 위기가정 지원 협약을 맺고 의료·주거·생계비, 정기후원, 물품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꾸준한 지원을 해왔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지난 1997년 인천시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빈곤 가정지원, 결연, 재가복지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단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권효정 국장은 "기저귀 지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있으면 장흥군과 협력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성인용 기저귀를 지원해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권효정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에 수익금 및 기부금 기탁 별교청년어울림

지난 10일 청년 봉사단체인 별교청년 어울림(회장 윤대중)이 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에 지역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과 회원들의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다.

2019년에 결성된 '별교청년어울림'은 별교읍 청년 2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이날 장학금 기탁 외에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엘이디(LED) 전등·수도꼭지 교체, 대문 및 현관문 수리, 연탄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별교청년어울림 대표 윤대중 회장은 "이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으로 청년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군장학재단 문찬오 이사장은 "이번 기탁은 보성군 내 학생들의 교육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년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이 우리 지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보성군 전체가 함께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지난 9일 순천시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에서 '제25회 월등면민의 날 및 28회 노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월등면, 제25회 민민의날·노인의날 행사 성황

순천시 월등면(면장 김구현)은 지난 9일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에서 '제25회 월등면민의 날 및 28회 노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의 월등면민복사골 한마음 행사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유현호 부시장, 오행숙 순천시의회 부의장, 정영균 도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월등면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농악공연과 난타공연으로 시작되었고, 기념식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오신 장수만남께 표창패가 수여되어 더욱 의미가 더해졌다. 이어 체육행사, 민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고무신 컬링, 어르신 낚시, 민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정임수 월등면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면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오늘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면민들의 행복한 미소가 내년 행사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구현 월등면장은 "이번 행사가 올해 복숭아 탄저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면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와 참석해 주신 면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달마사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서 전달

여수시는 지난 11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여수 달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지정서를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에 전달했다.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 정기명 시장과 달마사 주지 도해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정 시장은 달마사 소장본의 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며 지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달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미타도량에서의 참회를 서술



한 불교 의식집으로 1474년(성종 5) 왕실 발원 판본을 본보기 삼아 1572년(선조 5)에 다시 새긴 번각본이다.

보관상태가 양호해 권말에 기록된 시

주질·연화질·간기 등으로 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 조선 불교 문화사와 인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정 시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발굴됨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